

상, 발생빈도, 임상상 및 임상경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원발성 신증후군의 조직소견은 최소병변질환(49.3%), 소성사구체경화증(19.8%), 막성신병증(16.8%), mesangium 증식성사구체신염(5.6%), 경화성사구체신염(3.5%), 막중식성사구체신염(2.1%) 순으로 관찰되었다.

2) 남녀비는 2.5:1이었고 연령별로는 15~25세 사이의 환자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으며 44세 이하에서는 최소병변질환(52.7%)이, 45세 이상에서는 막성신병증(56.1%)이 가장 많았다.

3) 고혈압은 최소병변질환의 26.7%, 소성사구체경화증 29.9%, 막성신병증 28.6%, mesangium 증식성사구체신염 31.6%에서 관찰되었고 현미경적 혈뇨는 각각 22.9%, 44.8%, 43.9%, 78.9%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각각 88.6%, 93.9%, 69.6%, 63.2%에서, 혈청 creatinine치가 1.7 mg/dl 이상을 보인 예는 각각 29.3%, 51.5%, 15.8%, 26.3%에서 관찰되었으며 뇨선택지수는 각각 50%, 75%, 71%, 57.1%에서 0.2 이상이였다.

4) 25주 이상 추적된 환자에서의 완전관해는 최소병변질환의 77.9%, 소성사구체경화증 23.3%, 막성신병증 19.4%, mesangium 증식성사구체신염 18.2%에서 관찰되었고 무반응인 경우는 각각 9.2%, 50%, 61.3%, 45.5%였다.

이상에서 성인의 원발성 신증후군에서는 최소병변질환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15~25세 사이의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막성신병증이 증가하였고 고 creatinine 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빈도는 소성사구체경화증에서 높게 관찰되었으며 치료에 대한 반응은 최소병변질환에서 완전관해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 11 —

### 성인 원발성 신증후군에 관한 임상적 연구

전북의대 내과

조광호 · 장동석 · 강석귀

전북의대 부속병원 내과에 1979년부터 1987년 3월까지

지 8년 3개월간 신증후군으로 입원치료 받았던 107예중 원발성 97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별 본포는 21세에서 30세 사이가 37예(38%)로 가장 많았고, 남녀비는 2.5:1로 남자에 더 많았다.

2) 원발성 신증후군 97예중 52예(53.6%)를 신생검을 실시하여 조직 판독에 만족할만하게 신생검이 되었던 경우는 42예(80.8%)였는데 조직병리학적 소견으로 lipoid nephrosis가 21예(50%)로 가장 많았고 membranous 형은 6예(14%), mesangial proliferative 형 4예(9%), focal sclerosis 형이 2예(5%) 및 기타가 9예(22%) 이었다.

3) 장기간 추적이 가능한 70예에서, steroid요법에서 첫 4~8주간 완전관해 12예(17.1%) 부분관해가 온것이 35예(50%)였는데 steroid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23예(32.9%)였다.

Steroid 치료중 6개월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 27명에서 재차 6개월 이상 steroid요법을 시행하여 이중 17예는 부분적 관해가 있었으며 steroid 반응이 없었던 경우가 7예였고, 3예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initial steroid에 반응이 없었던 23예중 1예는 사망 하였다.

— 12 —

### 원발성 막성 신병증의 임상 및 병리학적 고찰

서울의대 내과

이종호 · 김윤구 · 한진석

김성권 · 이정상

병 리 과

김 용 일

막성 신병증은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를 가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성인 신증후군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증의 빈도나 병리적 고찰결과는 보고된 바 있으나, 성인 원발성 막성 신병증만의 임상적 검토는 없었다.

이에 연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신생검을 시행한 원발성 사